



※ '돌직구'는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리듬체조 요정의 금빛연기!' 손연재가 13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리듬체조 후프 결승에서 열정적 연기를 펼치고 있다. 광주 | 뉴스시스

한국 1위... '리우 희망' 밝혔다

광주U대회 결산 (上)

양궁 금메달 8개...변함없는 세계정상 확인
사격 금6·유도 금8...비리 악재 딛고 선전
손연재 성숙해진 연기력...올림픽 자신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가 14일 폐막식을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북한 선수단의 불참, 메르스(중증호흡기

증후군)로 인한 일부 선수들의 출전 포기 등 뒤늦게한 분위기 속에 개막했지만 금세 안정을 찾았다. 특히 태극전사들과 남자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한국 선수단은 폐막을 이틀 앞둔 12일 일찌감치 종합 1위를 확정했다. 한국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U대회 등 종합대회에서 세계 1위를 지킨 것은 2007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U대회 이후 2번째다. 홈 어드밴티지의 영향도 있었지만, 21개 종목 516명 선수단의 열정과 땀의 결과이자, 2012런던올림픽 이후 추진되고 있는 세대교체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와 더

불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희망도 얻었다. 2회에 걸쳐 광주U대회를 되돌아본다.

●효자종목의 선전

한국스포츠를 대표하는 전통의 효자종목들이 광주U대회에서도 큰 기쁨을 안겼다. 양궁의 경우 올림픽 종목 리커브는 물론 컴파운드까지 승승장구했다. '남녀 신궁' 이승윤(코오롱)과 기보배(광주시청)를 앞세운 양궁은 금 8, 은 4, 동 2개 등 모두 14개 메달을 따냈다. 당초 5개의 금메달을 노렸지만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집행부 비리로 뒤늦게했던 사격과 유도도 선전했다. '제2의 진종오' 박대훈(동명대)이 중심이 된 사격은 금 6, 은 3, 동 4개를 획득했다. 서정복 총감독이 흑독하게 조련한 유도 역시 활짝 웃었다. 남자 100kg 이하급 조구함(용인대)을 시작으로 남녀가 골로 두 금빛 물결을 이뤄 8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당초 사격은 4개, 유도는 5개의 금메달을 겨냥했지만 역시 이를 초과했다.

'특급스타' 이은재(삼성전기)가 다소 부진했음에도 배드민턴 역시 6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내년 리우올림픽을 향한 청신호를 켰다. 여자단식 우승자 성지현(MG세마울

●울통 희망의 싹

다른 종목들도 땀의 결실을 맺었다. 남자테니스 세계랭킹 76위 정현(상지대)과 리듬체조 손연재(연세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정현은 압도적 경기력으로 이번 대회에선 단식과 단체전 2관왕에 올랐다. 장마의 영향으로 실내외 코트를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한수 위의 기량을 뽐냈다. 정현은 "(올림픽은) 아직 먼 이야기지만 착실히 실력을 쌓아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손연재는 개인종합에서 아름다운 연기로 동유럽 라이벌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U대회에선 종목별 메달도 수여되지만 올림픽은 종합 메달만 있다. 리우대회를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 무대로 삼고 있는 손연재는 2년 전 러시아 카잔U대회 때보다 한층 성숙해진 연기력으로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이밖에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2위에 오른 '미녀 검객' 김선희(서울시청), 여자 다이빙에서 은 3, 동 1개를 챙긴 김나미(독도스포츠타운)도 향후 가능성을 증명했다. 광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남자 태권도 단체 겨루기 金...남자축구·여자핸드볼 銀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종목별 결승에서 후프와 볼 최강자에 오르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선수단 6번째 3관왕이 되며 한국의 하계U대회 첫 종합 1위 등극에 힘을 보탰다.

손연재는 13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리듬체조 마지막 날 종목별 결승 후프와 볼에서 각각 18,300점과 18,250점을 얻어 금메달 2개를 추가했다. 후프 은메달은 러시아의 마리아 티토프(18,000점), 동메달은 벨라루스의 멜리치나 스타뉴타(17,950점)에게 돌아갔고, 볼에선 간나 리자트디노바(18,100점·우크라이나)와 티토프(18,000점)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갔다.

하루 전 개인종합 결승에서 한국리듬체조 사상 첫 U대회 금메달을 따낸 손연재는 이어진 곤봉과 리본에서 5관왕에 도전했지



'아שר은 동메달' 이상수(21)가 13일 장성 홍길동체육관에서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탁구 남자단식 준결승에서 일본의 모리조노 마사타카의 공을 받아내고 있다. 장성 | 뉴스시스

만, 각각 17,800점을 얻어 두 종목 모두 은메달에 그쳤다. 전 종목(5개 종목) 석권에는 실패했다.

남자 태권도 대표팀은 단체 겨루기 결승전에서 중국을 9-8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인교돈(23·한국가스공사), 김대익(21·용인대), 김현승(21·경희대), 김준현(21·동아대)으로 구성된 단체 겨루기팀은 한국에 이번 대회 8번째 태권도 금메달을 안겼다. 여자단체 겨루기 대표팀은 준결승전에서 러시아에 12-13로 패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축구와 여자핸드볼도 은메달을 따냈다. 남자축구대표팀은 이탈리아와의 결승에서 0-3으로 졌다. 여자핸드볼대표팀은 36-38, 2점차로 패해 러시아에 금메달을 넘겨줬다.

탁구 남자단식 이상수(25·삼성생명)와 여자단식 양하은(21·대한항공)은 나란히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상수는 준결승에서 일본의 모리조노 마사타카에게 1-4로 졌고, 양하은은 중국의 체자오지에게 0-4로 완패해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남자핸드볼대표팀은 스위스와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36-38로 패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사이니·EXID·구준엽 무대...세계 젊은이들에게 '감동의 추억' 선물

■미리보는 폐회식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가 14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메달을 향한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뜨거웠던 광주U대회는 이날 오후 7시 광주유니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리는 폐회식을 통해 마지막 축제를 펼친다.

'셰어링 더 라이트(Sharing the Light)-창조와 미래의 빛, 세상과 소통하다'를 주제로 삼은 폐회식은 환영행사에 이어 각종 공식행사와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환영행사 때는 한국응원연합 치어쇼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상이 영상으로 공개된다. 이어 선수들이 입장하고, 클로드 루이 갈리앙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은 폐회사를 낭독하고 대회를 2017년 차기 대회 개최도시인 대만 타이베이 시장에게 전달한다.

광주U대회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2년 뒤 타이베이에서 다시 만날 선수들에게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로 준비돼 있다. K-팝의 대표주자 사이니, EXID, 지누현 등이 히트곡을 부르며 경기장을 뜨겁게 달군다. 또 DJ KOO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구준엽이 레이저쇼와 함께 화려한 디제잉 실력을 선보인다. 피날레는 국악인 남상일,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뮤지컬 디바 최정원·김소현이 '4색의 빛고를 아리랑'으로 꾸민다. 모든 행사가 끝난 뒤 경기장 하늘은 불꽃놀이로 반짝인다.

이번 개·폐회식을 준비하면서 광주U대회 조직위는 2013년 러시아 카잔U대회 개·폐회식 제작비 1200억원보다 한참 적은 101억원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 총연출도 맡은 김태욱 감독은 "대한민국의 흥 속에 세계 젊은이들이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겠다. 모두가 2015년 광주를 추억하며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슬기 기자 bsm@donga.com